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범죄소년을 중심으로 - Heckman Selection Model을 활용한 분석 -

임진섭* · 김명일** · 한은영***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있어 신체적·심리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는 중학교 2학년 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검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표본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Heckman Selection model 추정법을 통해 범죄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자료 1차 년도이며 총 사례 수는 3449명(범죄소년 680명)이다. 중학생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probit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강할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일탈적 낙인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본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보정한 교정항인 λ (lambda)계수를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투입한 뒤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적 성역할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가정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 력경험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일탈적 낙인이 높을수록 공격성 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고 재비행의 방지를 위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실천적 접근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범죄행위, Heckman Selection model, 공격성, 범죄소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as719@hanmail.net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교신저자, nanangcho@naver.com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mirdie2@hotmail.com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빠른 산업화, 정보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정적 감정 혹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 등 인간 생애주기에 있어 중요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다양한 발달 과업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며, 또한 다양한 문제행동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 중 대표적인 행위가 비행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 혹은 범죄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청소년들의 비행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점차 저 연령화, 집단화되어 가고 있다(이은주, 2000). 청소년 시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비행을 경험하지만 이 중 법적인 처벌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향후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크다는 점에서 개입의 여지가 크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반복적인 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져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여 전반적인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심각하게 고찰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요인 연구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중 청소년들의 성격적 특징이 비행행동의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성향이 이 시기의 비행 및 범법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김헌수·김현실, 2004). 실제로, Loeber와 Stouthamer-Loeber(1987)나 국내 학자들은 공격성을 잘 조절하지 못할 경우 비행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 박현선·김유경(1997)의 연구에서도 공격성을 청소년의 비행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관련된 행동들은 학교 부적응 그리고 우울 등의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Hudley & Graham, 1993; Loeber & Hay, 1997), 공격성을 가진 청소년들로 인해 학교나 지역사회 내에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이나 폭력, 범법 행위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격성 또는 공격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이나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공격성은 청소년의 일탈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Dryfoos, 1989)이며, 공격적 행동과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 간의 연구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격성과 관련하여 개인, 가족, 환경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공격성 관련 변인을 개인 차원, 가족차원, 학교 및 주위 환경차원으로 구분하여 일반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관련 요인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공격성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 또는 행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 특히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공격성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세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체계 안에서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실천적 접근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집단에 비해 비행의 정도와 강도가 높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소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및 주위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비행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더불어 국내 비행 청소년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비행청소년과 공격성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동기에서

한 명의 사회구성원인 성인으로 성장해나가는 과도기에 속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동기의 성향과 독립적인 성인기의 심리적 성향을 동시에 내재한다는 점에서 아동도 성인도 아닌 양 집단 사이의 주변인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양석호, 1991). 청소년기를 ‘제 2의 탄생기’라고 일컫는 것은 이와 같은 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김태순·강차연, 2008).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성은 생물학적인 삶에서 정신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뜻하며, 이 시기에 청소년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인간생애주기에 있어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도기적인 삶 안에서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배워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역할 정립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한 좌절, 초조, 불안, 고민, 반항 등을 야기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우려도 있다(김희태, 1990; 임영식·한상철, 2004).

즉,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릴 정도로 이 시기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심리적·사회환경적인 변화를 통해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들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민정·도현심, 2001). Berger(200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1/3정도가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인에 비해 극단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며 불안함에 대한 자각수준 역시 이시기에 최고치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서적 성향들은 청소년이 가진 환경에 대한 약한 통제력과 또래 집단에 대한 민감성과 맞물려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환경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 좌절, 초조, 불안 등의 역기능적 감정들은 일부 청소년으로 하여금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김희태, 1990). 그러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일탈 모두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신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이로 인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문제 행동이 바로 청소년 비행이다(김현자·김갑숙, 2008). 청소년 비행의 개념은 단순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격붕괴 또는 사회부적응 현상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설명되는데(함중환, 1980), 일반적으로 비행 청소년이란 “법률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위협이 예측되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 가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유해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 상습적 타락, 성적 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 등 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하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이은진, 2005).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은 정서적인 감정상태가 상당히 억압되어 있으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좌절, 분노, 소외감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최규련, 1996). 또한 불안과 방어적 경향을 보이며 지나치게 충동적이어서 자기통제가 잘 되지 않아(김향초, 1998),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쉽게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박인숙, 2004). 또한 자신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소극적이고 자아의 통합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자아통제력과 인내력이 부족하여 사회 환경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흔히 강한 정서적 반응으로 공격성을 표출한다(홍봉선·남미애, 2000; 398).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은 범죄와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반사회적 행동, 범죄, 비행, 폭력 등을 발생시키는 심리적 성향으로 작용한다(Olweus, 1979; 윤완기, 1994).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하며(장신재·양혜원, 2007) 외부적인 공격행동과 더불어 이러한 공격적 행동을 야기하는 분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Orpinas & Frankowski, 2001).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심희옥, 2007). Crick과 Grotpeter(1995)에 따르면 외현적 공격성이란 “남을 때리거나 미는 행동과 같이 신체적이며 남을 때려눕히려는 위협 같은 언어적인 공격”이다.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에 초점을 두어 어느 집단에서 한 아동을 고의로 빼 버린다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해서 우정과 감정을 해치려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성인으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lweus, 1991). 공격성은 학령기 초기에서 청소년기에 가장 정점에 달하며(Anderson, Russel & Schumm, 1983),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고 한다(장지순, 1999; Bryant, 1992). 또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주된 활동공간인 가정과 학교 등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손영득, 1998). 이처럼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행동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개인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김민정·도현심, 2001), 미래의 부적응까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이다

(Kupersmidt, Coie, & Dodge, 1990; Loeber & Hay, 1997;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박민정·박혜원, 2006; 재인용).

2.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개인은 사회체계 안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체계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한다. 즉, 한 개인은 가족 혹은 환경 등 여러 체계의 구성원으로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존재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환경 안에서 여러 요인의 결핍이나 과잉, 혹은 비정상적인 상호작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McMahon과 Watts(2002)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 생태학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생태학적 관점은 청소년의 발달이 다양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관계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으로, 청소년의 발달과 특징이 개인의 신체, 지적, 성격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본다(박민정·최보가,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가족관계,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청소년 공격성의 예방 및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 등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공격성과의 관련 변인을 개인차원, 가족차원, 학교 및 주위 환경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을 통해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간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많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성별, 성역할 정체감,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여가생활만족도, 비행청소년 친구 수 등의 여러 요인들이 공격성에 다양하게 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성별의 경우 공격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정경택, 2003; Maccoby & Jacklin, 1974)가 있는가 하면 여아도 남아처럼 공격적일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Parke & Slaby, 1983). 더불어, 공격성과 관련한 32개의 연구의 메타 분석을 한 연구에서는 24개의 연구에서 남자가 더 높은 공격성을 보였고, 8개의 연구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Maccoby & Jacklin, 1980) 전반적으로 볼 때 남자의 공격성이 여자보다 더 높은 공격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격성의 유형을 고려해 볼 경우, 남자는 외현적 공격성을, 여자는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태·박한샘, 1997; 김민정·도현심, 2001; 심희옥, 2007; Crick, Casas & Mosher, 1997). 이에 반해,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나타나지만,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Tomada & Schneider, 1997; 김민정·도현심, 2001), 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박민정, 2003; 박민정·최보가, 2004; 박민정·박혜원, 2006). 이처럼 공격성의 성차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다소 비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드문 실정이다.

성 역할 정체감의 경우, 이는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도 설명되는데, 성 역할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나 태도 외에 성별에 따라 학습하게 되는 “성격, 태도, 선호경향, 행동 등”을 말하고(이재현, 1983), 성 역할 고정관념이란 남녀 중 한 성과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받아들여려고 하는 욕구, 혹은 그 행위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 행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의 신념(Edelbrock & Sugaware, 1978)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성 역할 개념 역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게 된다(조복희·정옥분·유가효, 2004). 이렇게 정형화된 성 역할 정체감은 성장하면서 지속되어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의 성격,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은 공격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는데, 성별에 따른 성역할-공격성 간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남성성이 높을수록 공격적 성향이 높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공격적 성향이 낮다는 연구결과(임은진, 2005; 최해림, 2005; Kopper & Epperson, 1996)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자기 통제와 관련하여서도 자기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김애경, 2001; 박민정·최보가, 2004; 김동기·홍세희, 2007; Achenbach & Edelbrock, 1981; Goodman et al, 1993), 자기 통제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절망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공격행동이나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동기·홍세희, 2007).

이와 함께, 공격성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낮은 자존감이 공격행동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Wiehe, 1991; Kirschner, 1992; Anderson, 1994), 이 실증적 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각 연구마다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자존감과 공격행동은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서수균, 2002; Rigby & sree, 1993; Bushman & Baumeister, 1998)가 있는가 하면,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일 수록 더 공격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Lichr, 1966;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그러나 자존감과 공격성에 대한 전통적 주장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으로 낮은 자존감을 나타낼수록 공격 행동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이숙·이춘아, 1998; 서수균, 2002; 도금혜, 2006; 박민정·박혜원, 2006; 이경남, 2006; 이백철·김영희·김영란, 2006).

다음으로, 불안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문제들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의식의 형성, 진로 결정, 학업과 입시준비, 교우관계와 이성관계의 형성 등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정신적 부담 혹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정경택, 2003). 이와 관련하여 조동윤(2007)은 아동의 교사, 부모, 친구와 관련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문용린(1992)는 연구 역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미움, 원망, 죽이고 싶음, 증오 등의 정서반응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정서적 반응의 강도는 크고, 보다 타인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정경택, 2003), 가중된 스트레스는 공격행동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김동기·전지영·이선주, 2008).

한편, 인간의 생애에 있어 여가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얻으며(김동기 외, 2008), 이 시기의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자아 형성 및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권이중, 1985; Hultsman, 1993; Raymore et al, 1994). 그러나 현대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제약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동기 외, 2008).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비행친구 수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김동기·홍세희, 2007), 박민정·최보가(2004)는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Saner와 Ellickson(1996)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른 일탈행위에 참여할 때 많은 폭력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또래 집단 중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폭력과 같은 일탈행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타인에게 행하는 공격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일탈행동을 하지 못해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박민정·최보가, 2004; DiLalla & Gottesman 1989; Moffitt, 1993).

2)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 구성 형태,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경제적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가족형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김학주(2002)의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며, 심리적 안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혼 가정 혹은 편부모 가족 청소년들은 “경제, 자녀, 건강 및 의료,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겪고 있으며(이애재, 2000), 일부 연구에서는 가정 경제수준에 매개하여 이혼가정 자녀가 양친부모 가정에 비해 공격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홍순혜, 2004). 편부·편모 가정의 자녀와 양친부모 가정의 자녀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이 양친부모 자녀에게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는(이애재, 2000) 등 그 결과 역시 비일관적이다.

이와 함께 공격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정서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Baber, 1997;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0). 먼저, 부모-자녀 관계의 정서적 차원에서의 핵심적인 개념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애착이란 “개인이 자신

과 가장 친근한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관계”를 말한다(Bowlby, 1973). 부모-자녀 관계의 행동적 차원에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 감독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자녀와의 애착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인 돌봄의 내용으로서 애착과도 주요하게 연계되는 개념이다(Bowlby, 1969). 이러한 부모 감독은 특히 자녀의 공격적 특성이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장신재, 2007). 더불어, 가정에서 겪게 되는 가정 폭력도 청소년의 공격행동 및 비행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정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공격성을 학습하여 공격적인 행동이나 비행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김경희, 1995; 김재엽, 1998; 조미숙, 1999). 가정 폭력 노출에 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가정 폭력을 목격한 경우와 경험한 경우로 나뉘며,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경우보다 목격을 한 경우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고(Kalmuss, 1984), 가정 폭력 경험과는 다르게 단순히 목격만 한 경우는 가정 폭력 허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최옥순, 2003). 또한 아동 학대 노출이 부부폭력 노출,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이중노출 경험보다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목격, 경험, 이중노출 등 가정폭력 노출 유형에 따른 비교 연구결과도 있다(김형모 외, 2007).

이와 같은 부모-자녀 사이의 애착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등은 자녀의 정서 발달, 행동문제, 학업성취 등과 같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이진숙·정혜정, 2004; 이정윤·이경아, 2004; 권순영, 2006), 장신재·양혜원(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할수록 우울 및 공격성이 감소하고, 학교 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와 더불어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형제자매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오락이나 지지, 도움, 공유, 가르침 등의 친사회적 경험”을 하기도 하고(Brody, Stoneman, & Mackinnon, 1982),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지와 협력을 받기도 한다(Stoker & Dunn, 1990). 그러나 형제자매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공격행동이 증가하거나 공격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Loeber & Tengs, 1986; Hetherington, 1988), 문제가 없는 아동보다 반사회적인 아동이 형제로부터의 공격행동 학습이 많고, 그로인한 공격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Patterson, 1982). 김민정·도현심(2001)의 연구에서도 형제자매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공격성이 더 높게 관찰된다고 하여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공격

성이나 문제 행동이 낮다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였다. 이 외에도 가정의 경제 수준이 자녀의 심리·사회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가정의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와 부모에게 있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홍순혜, 2004). 경제적 결핍은 자녀의 교육, 자존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Amato & Keith, 1991). 가정의 경제적 취약함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부모가 경제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가족 간의 접촉이나 대화가 줄어들게 되는 동시에 부모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홍순혜, 2004). 또한, 이경혜(2004)의 연구를 보면 가정이 빈곤할수록 청소년들이 높은 공격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주위 환경 요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주위 환경 요인으로 학교 차원을 들 수 있다. 학령기 이후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가정환경과 함께 가정 외 환경의 영향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Patterson, 1986), 학교는 가정 외 사회적인 공식적 기관들 가운데 비중이 큰 생활 영역이다(이경님, 2006). 학교는 청소년들의 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이며, 이러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은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은 여러 행동문제를 표출한다는 연구가 많으며(이정구, 1999; 정재임, 2000; 이상균, 1999), 이정구(1999)의 연구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교사관계, 교우관계와 학교규칙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교사-학생 간의 갈등이 빈번할수록 학생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으며(이상균, 1999), 교사 지지와 학생의 공격성과 폭력성 간에 부적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정재임, 2000).

이러한 학교 안에서의 지지와 관심, 관계 형성 등은 청소년들의 공격성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서로 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이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학교에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 규칙에 잘 적응하지 못할수록 공격성이 높고(이경님, 2006), 친구지지, 교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다(박민정, 2004; 하영희, 2004)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정도(교우관계 영역 제외)가 낮은 아동일수

특 공격행동과 공격신념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정원·김현주, 2007). 또한 주위로 부터의 폭력 노출 정도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울, 불안, 공포, 공격성 등”의 다양한 정서·행동 문제와 함께 가족, 학교, 사회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Fitzpatrick & Boldizar, 1993; Horowitz & Jekel, 1995), 이러한 폭력적 행동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폭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보았던 행위 들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더 공격적이 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포에 대응하는 수단 으로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Osofsky et al. 1993).

비행청소년에 대한 낙인 역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낙인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법적 처벌과 같은 공식적 낙인을 경험하지 않아도 부모, 학교, 환경에 의한 비공식적 낙인을 받게 되면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Mastueda, 1992)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낙인은 학교생활, 친구, 부모 등 다양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Link et al., 1989). 이렇게 주위사람들로부터 받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부모나 교사의 처벌, 또래 따돌림, 차별대우, 부모의 이혼 및 별거, 범죄 피해 경험 등)은 청소년들에게 긴장을 주며, 이는 다시 분노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높이며 이것이 청소년 비행으로 나타난다(Agnew, 1992).

위와 같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수록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정구(1999)의 연구에서도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고, 학교행사 참여도도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이숙·이춘아(1998)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 또한 공격성과 상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2차 분석

(secondary data analysis)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본 패널자료의 대상은 2003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2개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당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통해 추출되었다. 2009년 5월 현재 5차년도 자료까지 구축되었으며 이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대상은 1차년도 데이터로서 최종 분석대상자는 3449명(남: 1,725명, 여: 1,724명)이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서로 상이한 기준을 단일차원에서 일관성 없이 적용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 지위비행과 범법비행을 혼용하거나 그 정도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경비행, 중비행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떤 기준으로 특정한 비행의 경중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이명진·조주연·최문경,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비행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행 소년법에 규정된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범죄소년이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를 말하며 형사책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 패싸움, 부모를 폭행한 경험 교사를 폭행한 경험, 오토바이 폭주, 절도, 약물복용, 매춘, 강간이나 성폭행 경험 등이 있다(최원기, 2001; 이명진 외, 2007).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 갈취’,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남을 협박하기’, ‘성폭행이나 성희롱’등의 경험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및 측정도구

범죄행위 청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경우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한다

1). 즉, 범죄행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절단된 표본(censored sample) 또는 절삭된

1)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는데 있어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범죄행위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0으로 한 다미변수를 설정하고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이들의 값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여 OLS를 통한 추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첫 번째 방식이 갖는 문제점은 범죄행위 경험이 없는 이들의 공격성을 제외시키고 추

표본(truncated sample)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추출된 표본집단이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되지 않음에 대한 표본선택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고 이를 OLS 추정 시 표본선택편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종속변수의 분포가 제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의 OLS 추정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Heckman, 1981). 표본선택편의의 문제는 이처럼 분석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닌 분석모형에 포함될 수 없는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unobservable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조동훈, 2008). 즉, 공격성에 영향을 주지만 관찰할 수 없어 모형에 포함되지 못하는 개인의 특성과 범죄행위 여부가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범죄소년만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추정하는 경우 과대추정(overestimate)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이며 이러한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된 공격성은 추정량의 편의를 일으켜 대표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백일우·임정준,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본선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조정하기 위해 Heckman selec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즉, 범죄행위 여부를 더미변수인 종속변수로 설정한 1단계의 프로빗(probit)모형에서, 관찰할 수 없는 개인특성을 반영한 추정치인 IMR(Inverse Mill's Ratio)을 구한 뒤 2단계 회귀분석에서 부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선택편의의 문제를 수정한 공격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즉, 범죄행위를 저지를 확률을 probit 모델을 통

정한다는 것이다(강철희, 2006). 즉, 범죄행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기능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순히 범죄소년만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추정하게 되면 이는 과대추정의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범죄행위 경험이 0인 청소년들, 즉,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선형관계를 고려할 없이 통상적인 OLS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정확한 추정이 되기 어렵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 Heckman은 먼저 범죄행위의 선택을 추정하는 방정식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latent function)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저지르지 않는 것, 이 둘 중에서 범죄행위를 한 청소년들이 어떤 특정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Heckman selection model은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는 두 번째 방정식을 추정하는데 있어 범죄경험이 0 이상일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으로부터의 정보(IMR)를 반영하여 두 번째의 추정방정식인 공격성을 추정함으로써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bias)를 보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heckman selection model을 통한 추정법은 범죄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같은 종속변수가 제한된 공격성을 추정할 경우 발생하는 표본선택으로 인한 편의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하고자 함이다.

해 추정하고 이 probit 방정식으로부터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험확률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다. 추정된 범죄행위여부의 확률값(IMR)을 2단계의 공격성방정식의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공격성 함수와 범죄행위여부 결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ext{식(1)} \quad Y_i = X_i\beta_i + \epsilon_i$$

$$\text{식(2)} \quad S_i = Z_i\gamma_i + v_i$$

$$E(\epsilon_i) = 0, E(v_i) = 0, E(\epsilon_i^2) = \sigma_{\epsilon_i}^2, E(v_i^2) = \sigma_{v_i}^2, E(\epsilon_i v_i) = \sigma_{\epsilon_i v_i}$$

여기서 식(1)은 공격성 함수이며 식(2)는 범죄행위 여부의 결정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Y_i 는 범죄소년의 공격성이며 S_i 는 범죄행위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S_i 는 이분산성 더미변수로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경우 $S_i=1$, 범죄행위 경험이 없는 경우 $S_i=0$ 의 값을 갖는다. $S_i=1$ 의 경우에만 공격성인 Y_i 가 측정 가능하다. 여기서 식(1)에 기댓값을 투입하여 변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E(Y_i^* | X_i) = X_i\beta_i \quad (\because E(\epsilon_i | X_i) = 0)$$

$S_i=1$ 의 경우에 측정 가능한 공격성 함수를 범죄행위여부 결정식을 고려하여 다시 회귀방정식의 형태로 변형하면

$$\text{식(3)} \quad E(Y_i^* | X_i, S_i = 1) = X_i\beta_i + E(\epsilon_i | S_i = 1)$$

식(3)의 $E(\epsilon_i | S_i = 1) \neq 0$ ($S_i = 1 (v_i > -Z_i\gamma_i)$)이다. 식(1)의 공격성 함수를 범죄행위에 대한 여부 결정식을 고려하지 않고 OLS추정을 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편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선택의 편이를 보정하기 위한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통해 이러한 편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시 공격성 함수를 정의하면,

$$\text{식(4)} \quad E(Y_i^* | X_i, S_i = 1) = X_i\beta_i + \theta_i \lambda_i$$

식(4)로 공격성 함수를 재편성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3)에 의하여 $E(\epsilon_i | S_i = 1) = \theta_i \lambda_i$ 이며 여기서 λ IMR 즉, Mill의 역비율을 의미한다. 즉, 1단계의 프로빗 모형에서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IMR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2단계 분석에서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식5).

$$\begin{aligned} \text{식(5)} \quad Y_i &= X_i \beta_i + \theta_i \lambda_i + \epsilon_i \\ (E(Y_i^* | X_i) &= X_i \beta_i \quad (\because E(\epsilon_i | X_i) = 0) \end{aligned}$$

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 경험여부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변수와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핵크만의 2단계 추정모형 검증을 위해 STATA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외 분석은 SPSS 12.0으로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작업(data cleaning)을 거쳐, 연구목적에 맞게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카이제곱 검증(Chi-squared test) 등을 실시하였다.

<표 1> 변수 및 측정도구

구분	변수	내용	문항 수	내적 일관성	
개인 요인	성별	남성=1, 여성=0	1	-	
	자기통제력	각각의 문항은 역코딩 함.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6	.650	
	성역할정체감	전통적 남성역할 태도와 여성역할태도로 구분. 이중 여성역할태도를 역코딩·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남성적 거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높음을 의미	6	.713	
	자이존중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구분. 부정적 평가 3문항은 역코딩함.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이존중감이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6	.734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17	.880	
	여가생활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1	-	
가족 요인	부모감독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4	.850	
	부모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6	.859	
	가정폭력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경험이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4	.783	
	형제자매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1	-	
	경제적 수준	가구 월평균 소득정도를 사용.	1	-	
학교 및 주위 환경 요인 ²⁾	교사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3	.702	
	친한 친구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친한 친구와의 애착이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4	.765	
	주위로부터 받는 폭력경험	지난 1년간 협박, 집단따돌림, 폭행, 갈취 등을 당한 경험을 총합적으로 사용.		-	
	성적	지난 학기 반 성적 비율(반등수/반인원)	1	-	
	비행친구 수	매우 친한 친구 중 패싸움, 흡연, 갈취, 음주, 무단결석, 폭행 등의 비행을 저지른 친구의 수를 총합적으로 사용.	6	-	
	학교 수련 활동 참여	지난 1년간 체력증진활동, 정서함양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의 6가지 학교수련활동에 참여여부를 총합적으로 사용.	6	-	
	다른 사람의 일탈적 자이낙인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사람에 대한 자신의 일탈적 낙인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2		
	범죄행위 경험	지난 1년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험	6	-	
	공격성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성향이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6	.765

2) 이의 선행연구에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으로 제시한 ‘학교친구와의 애착정도’와 ‘공부압력’을 본 연구의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으나 항목의 평균 공분산이 음수로 나타나 신뢰도 모형 가정에 위배되어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한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특성

1) 개인요인 특성

분석대상자의 개인요인 특성과 이에 따른 일반청소년과 범죄행위 경험 청소년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모든 개인요인 특성에서 집단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성역할정체감의 경우, 범죄소년 2.93점(SD=.64), 일반청소년 2.73점(SD=.66)로 나타나 범죄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 역시 범죄소년(M=3.30, SD=.64)이 일반청소년(M=3.03, SD=.64)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역시 범죄소년(M=2.95, SD=.68)이 일반청소년(M=3.15, SD=.64)에 비해 더 낮았으며 스트레스 또한 범죄소년(M=2.89, SD=.68)이 일반청소년(M=2.643, SD=.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만족도의 경우 범죄소년(M=3.19, SD=.95)이 일반청소년(M=3.293, SD=.9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범죄소년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상태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의 이러한 부정적 정서상태가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 분석대상자의 개인요인 특성

구분	일반청소년(n=2,769)		범죄소년(n=680)		t(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역할정체감	2.73	.66	2.93	.64	-7.110(.000)
자아존중감	3.20	.61	3.03	.64	6.397(.000)
자기통제력	3.15	.64	2.95	.68	-16.489(.000)
스트레스	2.64	.63	2.89	.68	-8.667(.000)
여가만족	3.29	.91	3.19	.95	2.743(.006)

2) 가족요인 특성

분석대상자의 가족요인 특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3). 마찬가지로 범죄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족구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양친이 모두 있는 경우가 범죄소년 92.8%, 일반청소년 93.8%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71$, $df=1$, $p=.325$). 경제수준의 경우 범죄소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4.69만원($SD=207.01$), 일반청소년은 298.54만원($SD=219.23$)으로 범죄소년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는 범죄소년($M=3.00$, $SD=.88$)이 일반청소년($M=3.27$, $SD=.85$)보다 낮았으며 부모애착 역시 범죄소년($M=3.16$, $SD=.83$)이 일반청소년($M=3.39$, $SD=.7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경험의 경우 범죄소년($M=2.06$, $SD=.89$) 일반청소년($M=1.72$, $SD=.75$)보다 더 높았으며 형제자매와의 긍정적 관계정도는 범죄소년($M=3.05$, $SD=1.04$)이 일반청소년($M=3.23$, $SD=1.0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정비행 청소년의 경우 가장 일차적인 애정과 보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족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정이 일반청소년보다 취약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역시 범죄행위 여부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분석대상자의 가족요인 특성

구분	일반청소년(n=2,769)		범죄소년(n=680)		t(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수준	298.54	219.23	304.69	207.01	-.638(.524)
부모감독	3.27	.85	3.00	.88	7.386(.000)
부모애착	3.39	.76	3.16	.83	6.569(.000)
가정폭력경험	1.72	.75	2.06	.89	-9.195(.000)
형제자매 관계	3.23	1.08	3.05	1.04	3.800(.000)

3) 학교요인 및 주위환경 요인 특성

분석대상의 학교요인 특성은 교사에착, 성적, 학교수련활동 참여, 비행친구 수, 주위환경에 대한 폭력경험, 타인의 일탈적 자아낙인 등으로 살펴보았으며 친한 친구에 착과 학교수련활동 참여를 제외하고 각 변수들의 통계적인 집단 간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분석대상자의 학교 및 주위환경 요인 특성

구분	일반청소년(n=2,769)		범죄소년(n=680)		t(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에착	2.50	.81	2.31	.87	5.036(.000)
친한 친구에착	4.05	.65	4.09	.67	-1.601(.109)
성적	43.00	27.51	52.93	27.21	-8.302(.000)
학교수련활동 참여	.25	.24	.27	.25	-1.745(.081)
비행친구 수	.29	.79	1.48	2.50	-12.297(.000)
폭력경험	.05	.11	.11	.17	-8.682(.000)
타인의 일탈적 자아낙인	1.58	.71	2.13	.97	-13.797(.000)

우선 교사에착의 경우 일반청소년(M=2.50, SD=.81)이 범죄소년(M=2.31, SD=.87)년 보다 높았으며 성적인 반 등수비율 역시 일반청소년(M=43.00, SD=27.51)이 범죄소년(M=52.93, SD=27.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 수의 경우 범죄소년(M=1.48, SD=.2.50)이 일반청소년(M=.29, SD=.79)에 비해 많았으며 주위에서 경험한 폭력경험 역시 일반청소년(M=.05, SD=.1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의 일탈적 자아낙인 역시 범죄소년(M=2.13, SD=.97)이 일반청소년(M=1.58, SD=.7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위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부정적 낙인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친한 친구와의 애착정도의 경우 범죄소년(M=4.09, SD=.67)이 일반청소년(M=4.05, SD=.6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다. 또한 일반청소년(M=.25, SD=.24)이 범죄소년(M=.27, SD=.25)에 비해 학교수련활동 참여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상에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및 주위환경 역시 일반청소년에 비해 원만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분석대상자의 범죄행위 경험과 공격성 특성

마지막으로 분석대상자의 범죄행위 경험과 공격성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집단을 범죄소년과 일반청소년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의 범죄행위 경험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범죄소년의 범죄행위경험은 평균 1.59회(SD=.9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집단 간의 공격성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범죄소년(M=3.13, SD=.71)이 일반청소년보다 공격성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표 5> 범죄행위 경험정도와 공격성

구분	일반청소년(n=2,769)		범죄소년(n=680)		t(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범죄행위 경험	0.00	0.00	1.59	.95	-43.858(.000)
공격성	2.66	.68	3.13	.71	-16.100(.000)

2. 범죄행위 여부 및 공격성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 분석 결과

다음의 나타난 <표 6>와 <표 7>는 Heckman selection Model을 사용한 분석결과로서 1단계인 probit분석에서는 전체 청소년 3,436명, 2단계인 공격성 분석에서는 범죄소년 667명이 사용되었다³⁾. 모형의 wald χ^2 의 값은 3441.91(***)로서 이 모형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앞서 연구방법에 언급하였듯이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기에 앞서 범죄행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pr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분석이다. 이때 종속변수는 범죄행위 경험에 대한 유무를 사용하였으며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경우=1, 범죄행위경험이 없는 경우

3) 설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해 본 결과 모두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이 된다. 1단계의 probit 분석과 2단계의 공격성 분석에서는 가족구성 변수를 투입하지 않았다. 이는 범죄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양친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probit 분석결과 청소년의 범죄행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자기통제력, 성역할정체감 등의 개인요인이 학교 및 주위환경요인으로는 주위에 대한 폭력경험, 성적, 비행친구 수, 타인의 낙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요인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높을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타인의 낙인정도가 높을수록 범죄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6> 범죄행위 경험요인의 probit 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Coefficients	SE	Z	P> Z	
개인요인	성별	.190	.059	3.190	.001
	자기통제력	-.414	.041	-1.080	.000
	성역할정체감	.128	.044	2.910	.004
	자아존중감	-.011	.047	-.250	.806
	스트레스	-.012	.044	-.260	.792
	여가만족	-.046	.030	-1.510	.131
가족요인	부모애착	-.012	.043	-.280	.782
	부모감독	-.070	.037	-1.890	.059
	가정폭력경험	.068	.035	1.920	.055
	형제자매관계	-.010	.023	-.450	.654
	경제적수준	.000	.000	1.270	.203
학교 및 주위환경요인	교사애착	-.062	.035	-1.780	.075
	친구애착	-.018	.040	-.460	.642
	주위에 대한 폭력경험	1.192	.196	6.070	.000
	성적	-.000	.000	-2.110	.035
	비행친구 수	.267	.023	11.850	.000
	수련활동	.187	.110	1.700	.090
	타인의 낙인	.188	.035	5.350	.000
관측치 수		3,436			
pseudo R ²		.197			
Log likelihood(χ^2)		-1369.31(.000)***			

* : p<.05, ** : p<.01, *** : p<.001

다음은 첫 번째 probit 분석에서 추정된 표본선택편의를 보정하는 교정항인 λ (Inverse Mill's Ratio_lambda)을 투입하여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한 결과이다(표 7). 비교를 위해 첫 번째 열에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표본 추출하여 공격성을 추정한 OLS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λ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2단계 모형은 표본선택에 의한 편위의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소년만을 표본으로 하여 OLS 회귀분석을 하게 될 경우 표본선택에 의한 편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λ 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OLS 추정 시 표본선택에 의한 편위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남성일, 김경환, 1993).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범죄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OLS 분석결과와 Heckman selection Model의 분석결과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표본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위를 보정한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7> 범죄소년의 공격성 추정결과

변수명	OLS			Heckman Selection Model			
	Coefficients	SE	P> Z	Coefficients	SE	P> Z	
개인요인	성별	-.112	.022	.000	-.036	.057	.532
	자기통제력	-.365	.017	.000	-.285	.062	.000
	성역할정체감	.069	.016	.000	.207	.042	.000
	자아존중감	-.001	.019	.947	.129	.043	.002
	스트레스	.215	.019	.000	.230	.041	.000
	여가만족	-.030	.012	.011	-.019	.029	.500
가족요인	부모애착	.079	.016	.000	.083	.038	.030
	부모감독	.015	.014	.265	.039	.034	.257
	가정폭력경험	.045	.014	.002	.114	.032	.000
	형제자매관계	-.018	.009	.040	-.017	.022	.440
	경제적수준	.000	.000	.553	.000	.000	.684
학교 및 주위환경요인	교사애착	-.007	.013	.601	-.007	.031	.828
	친구애착	.038	.016	.017	.191	.037	.000
	주위에 대한 폭력경험	.032	.080	.693	.540	.187	.004
	성적	.000	.000	.063	-.000	.000	.516
	비행친구 수	.028	.008	.000	.056	.020	.006
	수련활동	.031	.041	.459	.089	.104	.394
	타인의 낙인	.113	.014	.000	.224	.034	.000
λ (Inverse Mill's Ratio)				.380	.160	.017	
관측치 수	667			667			

* : p<.05, ** : p<.01, *** : p<.001

분석결과 범죄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요인으로는 자기통제력, 성역할정체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가,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애착, 가정폭력경험이, 학교 및 주위환경 요인으로는 친한 친구애착, 주위에 대한 폭력경험, 비행친구 수, 다른 사람의 일탈적 자아낙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적 성역할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가정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일탈적 낙인정도가 높을수록 범죄소년의 공격성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이상에서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향요인과 범죄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추정을 Heckman Selection Model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probit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일탈적 낙인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범죄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행위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된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가정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일탈적 자아낙인정도가 높을수록 범죄소년의 공격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볼 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에

착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공격성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선, 성별에 따른 공격성 차이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편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반대적일 수 있음을 보고한다.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며(Crick et al, 1995; Crick, Ostrov, Burr, Cullerton-Sen, Jansen-Yeh, & Ralston, 2006) 관계지향적 공격성에서는 여아가 남학생보다 높거나 차이가 없다는 등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도 존재한다(Galen & Underwood, 1997; Tomada & Schneider, 1997).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학생의 공격성이 남학생의 공격성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김동기·홍세희(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시행된 선행연구들과 달리 전국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며, 추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더불어 정확한 성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격성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측정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죄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았지만 실제 범죄소년의 공격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다(Rosenbaum & DeCharms, 1960; Lochman & Lampron, 1986; Long, 1990; Wiehe, 1991; Jankowski, 1991; Kirschner, 1992; Anderson, 1994).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과의 관계가 일관된 것은 아니고,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Buss & Perry, 1991; Bushman & Baumeister, 1998; Salmivalli, 2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Worchel, 1958; Licht, 1966;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서 공격적인 집단과 자아존중감이 높으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집단(Baumeister, 1993)이 그것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균형적이고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경우일지라도 내면에 취약하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니고 있어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실추되거나 자존감이 위협받는 경우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워하며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수 있다 (Baumeister, 1997). 이는 방어적 자존감 집단이라고도 불리우며 (Harder, 1984), 이 집단의 경우 자기에적 성향 집단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에 대해 과대하게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분노감을 경험하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 (Salmivalli, 2001). 또한 부정적인 평가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열등감이나 약함에 대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의 범죄소년의 경우 방어적인 자아존중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자아존중감은 높을 수 있지만 실제 내면의 자아존중감은 낮아 자신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나 비난을 부당하게 지각하여 공격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아존중감을 단일영역으로 간주하여 측정하기보다는 하위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금혜 · 최보가 · 이지민, 2005).

이와 더불어 범죄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과 친한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관찰된다는 것 또한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사실이다 (Constantino, 1995; Saner & Ellickson, 1996). 이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흔히 과잉된 부모의 관심과 보호는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공격적인 행동을 길러주게 된다 (박지숙 · 임승현 · 박성연, 2009). 즉, 아동에 대한 과보호적이고 지나친 애착은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여 (Hastings, Rubin, & DeRose, 2005) 공격성이 증가된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있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은 부모와의 애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Armsden & Geenberg, 1987).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도 원만하며 또래관계에서 지각된 인기정도 역시 높을 수 있다. 이처럼 또래관계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금혜 외, 2005) 이로 인해 부모와의 애착정도와 공격성과의 정적인 관계를 유추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로서 체계적인 경로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친한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 상 친한 친구와 비행친구의 수가 상당히 동일하다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비행친구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욕구충족의 특성을 지니는데(Linden & Hacker, 1973; Giordano et al, 1986; Agnew, 1991), 이러한 비행집단과의 교제를 통해 비행문화나 비행친구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므로 자연스럽게 비행정도가 높아져(김준호·박미형, 1993) 이로 인해 범죄소년의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가 높다고도 보고되고 있으며(도금혜·최보가, 2007)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또래와 관계가 더 원만하다(박영신, 2001).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범죄소년의 공격성은 개인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요인과 학교 및 주위환경요인 등의 다양한 체계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이는 결국 가족을 비롯한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경우 가장 활발한 중학교 시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이다. 특히 이 시기의 학생들의 경우 2차 성징의 발현 등의 신체발달과 관련된 심리적·신체적 변화가 집중되며 자기정체감 확립과 같은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에서 겪는 역할혼미 등을 크게 경험한다는 점에서(Erickson, 1980)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다양한 영역에서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비행은 성장하는 과정에 일시적이고 단순한 사건으로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점점 저 연령화, 집단화되어 가고 소년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범죄를 포함한 청소년 비행이 초기 청소년인 12세에 시작되어 17세까지 증가한다는 것(Coie & Dodge, 1998) 그리고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행동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개인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김민정, 도현심, 2001)을 인지하고 범죄소년들을 위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를 해소하여 정확한 추정을 가능토록 하는 Heckman Selection Model을 통해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고 재비행의 방지를 위한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탐색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탐색적 요인 규명에 목적을 둬으로써, 범죤소년과 공격성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로서 표본선택의 문제를 해결한 체계적인 종단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갈음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철희(2006). 한국인의 나눔노력에 관한 연구: Heckman Selection Model과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한 분석.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06.
- 권순영(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변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중등교육연구*, 제54권 제3호, pp. 329-349.
- 권이중(1985).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지도*. 배영사.
- 김경희(1995).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기·전지영·이선주(2008). 청소년의 여가제약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회*, 제15권 제5호, pp. 157-179.
- 김동기·홍세희(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제8권 제2호, pp. 21-42.
-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제22권 제2호, pp. 149-166.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2권 제3호, pp. 271-285.
- 김용태·박한샘(1997). *청소년 따돌림의 실태조사*. 제14회 특수상담사례연구 발표회 자료집.
- 김재엽(1998).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5권, pp. 103-127.
- 김정원·김현주(2007).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 제16권 제2호, pp. 85-93.
- 김준호·박미성(1993). *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순·강차연(2008). 고등학생의 우울과 공격성. *심리치료*, 제8권 제1호, pp. 85-100.
- 김학주(2002).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제51권, pp. 141-156.
- 김향초(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누구에게 속한 아이들인가?*. 학지사.
- 김현수·김현실(2004). 한국 청소년의 공격성 관련변인 및 표출 경로. *신경정신의학*,

- 제43권 제1호, pp. 75-84.
- 김형모 · 이숙진 · 서해정 · 최은정 · 김은정 · 문순희(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1호, pp. 53-77.
- 김현자 · 김갑숙(2008). HLM(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현실요법적 집단 미술치료 효과 분석. *미술치료연구*, 제15권 제1호, pp. 81-103.
- 김희대(1990). 비행청소년의 치료제도. *한국심리학회산하 임상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 남성일 · 김경환(1993). 도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의 효과분석. *한국지역학회*, 제9권 제2호, pp. 59-68.
- 도금혜 · 최보가(2007). 청소년의 또래집단이 지각한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1호, pp. 107-134.
- 도금혜 · 최보가 · 이지민(2005). 청소년의 사회측정적 인기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2호, pp. 57-67.
- 박민정(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민정(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2권 제4호, pp. 95-104.
- 박민정 · 박혜원(2006). 자아개념, 애착, 교사 및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선족 및 한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3호, pp. 79-89.
- 박민정 · 최보가(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4호, pp. 95-104.
- 박영신(2001). 감각추구성형과 또래관계 요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숙(2004).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와 사회재적응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석사논문*.
- 박지숙 · 임승현 · 박성연(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30권 제3호, pp. 85-98.
- 박현선 · 김유경(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2권, pp. 113-135.

- 백일우·임정준(2008). 여성고등교육이 청년층 여성의 기대수익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7권 제1호, pp. 123-148.
- 서수균·권석만(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제4호, pp. 809-826.
- 손영득(1998). 청소년 공격성 감소훈련이 공격성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2007). 또래 괴롭힘과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6호, pp. 1107-1118.
- 양석호(1991). 밝은 사회 건전한 청소년.-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체육청소년부, pp. 18
- 윤완기(1994). 부모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경남(2006). 아동의 개인, 가족 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 제15권 제1호, pp. 31-44.
- 이경혜(2004). 부모빈곤과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 회지, 제25권 제5호, pp. 1-9.
- 이명진·조주연·최문경(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제7회 사회연구학술상 최우수상(삼복학술상) 수상논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제2권, pp. 9-42.
- 이백철·김영희·김영란(2006). 소년수형자들의 자기에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제33권, pp. 61-88.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숙·이춘아(1998). 청소년이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제16권 제3호, pp. 67-77.
- 이순래(2005). 청소년 비행의 발전양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제2회 한국청소년 패널학술대회 자료집, pp. 293-316.
- 이에재(2000). 편부모가족 청소년의 부모, 자녀관계와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제7권 제1호, pp. 69-93.
- 이은주(2000).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제7권 제1호, pp. 149-168
- 이은진(2005). 행동수정요법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금연에 미치는 효과. 정신

- 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64-72.
- 이재현(1983). 여자대학생의 장래계획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아세아여성연구*, 제22권, pp. 87-97.
- 이정구(1999). 학교생활적응과 가족환경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정혜정(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pp. 47-61.
- 이정윤·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제16권 제2호, pp. 261-276.
- 임영식·한상철(2004). 청소년 심리의 이해. 학문사.
- 임은진(2005). 남녀 아동의 성역할 및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 *이화교육논총*, 제15권, pp. 13-27.
- 장신재·양혜원(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 5-29.
- 장지순(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택(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교육학회*, 제12권 제2호, pp. 151-162.
- 정재임(2000). 청소년의 폭력성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동훈(2008). 내생성과 표본선택편의의 차이는?. *국제노동브리프*, 제6권 제2호, pp. 97-103.
- 조미숙(1999).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변인 탐색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복희·정옥분·유가효(2004). 인간발달. 교문사.
-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1호, pp. 147-160.
- 최옥순(2003). 성인의 아동의 가정폭력 노출과 가정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원기(2001). 청소년 범죄행위의 경향과 원인에 대한 실태연구 - 전국 청소년 문제 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

- 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01-R18: 1- 97.
- 최윤정 · 김춘경(2000). 청소년의 자아 상태와 공격성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제5권 제1호, pp. 115-138.
- 최해림(2005).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제17권 제3호, pp. 599-616.
- 편집부. *경찰백서*. 2008. 경찰청.
- 하영희(200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12권 제2호, pp. 42-52.
- 하영희, Edwards, C. P.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제25권 제2호, pp. 121-132.
- 함중환(1980). *청소년 이해를 위한 접근*. 서울: 상조사.
- 홍봉선 · 남미애(2000).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17권, pp. 151-177.
- Achenbach, T. M. and Edelbrock, C. S.(1981).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o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12 No.4, pp. 483-498.
- Agnew, R. (1991). The interactive effects of peer variables on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9 No.1, pp. 47-72.
-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0, No. 1, pp. 47-88.
- Amato, P. R. and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0 No.1, pp. 26-46.
- Anderson, E. (1994). The code Of the streets. *Atlantic Monthly*, Vol. 273, pp. 81-94.
- Anderson, S. A., Russel, C. S. and Schumm, W. R. (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y: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5, pp. 127-139.

- Armsden, G., & Greenberg, M.(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pp. 427-454.
- Baber, B. K., Chadwick, B. A & Oerter, R.(1997).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9*, pp. 140-153.
- Baumeister, R.(1993). Understanding the inner nature of low self-esteem. Uncertain, fragile,protective, and conflicted. In R.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pp. 201-218). New York: Plenum press.
- Baumeister, R.(1997). Evil. *Inside human cruelty and violence*. New York: Freeman.
- Baumeister, R. F., Smart, L., and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Vol. 103*, pp. 5-33.
- Berger K S(2005). *The developing person: Through childhood and adolescence* Worth Publishers: New York,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ody, G. H., Stoneman, Z. and Mackinnon, C. E.(1982). Role asymmetries in interaction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ir younger siblings, and their friends. *Child Development, Vol. 53*, pp. 1364-1370.
- Bryant, B. K.(1992). Sibling caretaking: Providing emotional support during middle children. In F. Boer & J. Dunn(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pp. 55-70), Hillsdale, NJ: Erlbaum.
- Bushman, B. J. and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5*, pp. 219-229.
- Buss, A., & Perry, M.(1991). *Sources of Self-esteem in Men and Women*,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Constantino, J. N.(1995). Ear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children. *Harvard Psychiatry, Vol. 2 No.5*, pp. 259-273.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pp. 579-588.
- Crick, N. R. and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6, pp. 710-722.
- Crick, N. R., Ostrov, J. M., Burr, J. E., Cullerton-Sen, C., Jansen-Yeh, E., & Ralston, P.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preschool.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pp. 254-168.
- Cummings, E. M., Davies, P. T., & Campbell, S. B.(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family proces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iLalla, L. F. and Gottesman, I.(1989). Heterogeneity of causes for delinquency and criminality: Life span perspectiv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1, pp. 339-349.
- Dryfoos, J. G.(1989). *Adolescent at Risk*.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Edelbrock, C. and Sugawara, A. I.(1978). Acquisition of sex-typed preference in preschool-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4, pp. 614-623.
- Erickson, E.(1908).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york: W. W. Norton & Company.
- Fitzpatrick, K. M. and Bildizar, J. P.(1993). The prevalence and consequences of exposure to violence among African-American yout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2, pp. 424-430.
- Galen, B. & Underwood, M. (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pp. 589-600.
- Giordano, Peggy C., Stephen A. Cernkovich, and M. D. Pugh.(1986). Friendships and delinquenc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1 No.5, pp. 1170-1202.
-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and Fielding, B.(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Vol.64, pp. 516-531.
- Harder, D.(1984). Character style of the defensively high self-esteem m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40, pp. 26-35.
- Hastings, P. D., Rubin, K.H., & DeRose, L.M. (2005). *The links between gender, inhibition, parental soc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 Merrill-Palmer Quarterly,
- Heckman, J.(1981). The incidental parameters problem and the problems of initial conditions in estimating a discrete time data stochastic process. in C. F. Manski and D. McFadden(Eds.), *Structural Analysis of Discrete Data with Econometric Applications*(pp. 114-78). Cambridge MA: MIT Press.
- Hetherington, E. M. (1988). Parents, children, and siblings six years after divorce. in R. Hinde and J. Stevenson-Hinde(Eds.), *Relationships with Families*(pp. 311-331).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Horowitz, K., Weine, S. and Jekel, J.(1995). PTSD symptoms in urban adolescent girls: Compounded community traum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4*, pp. 1353-1361.
- Hudley, C. and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boy. *Child Development, Vol. 63*, pp. 103-115.
- Hultsman, W. Z.(1993). Is Constrained Leisure an Internally Homogeneous Concept? An Exten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5*.
- Jankowski, M. S.(1991). *Islands in the Street: Gangs and American Urban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lmuss, D.(1984). The inter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14*, pp. 11-19.
- Kirschner, D. (1992). Understanding adoptees who kill: Dissociation, parricide, and the psycho dynamics of ado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Vol. 36*, pp. 323-333.
- Kopper, B. A. and Epperson, D. L.(1996).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Relationships with gender, gender role socialization,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3*, pp. 158-165.
- Licht, L. A.(1966). *Direct and displaced physical aggression as a function of level of self-esteem and method of anger arousal*. Unpublished doctoral asser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Linden, Eric and James C. Hackler.(1973). Affective ties and delinquency. *Pacific Sociological Review*, Vol. 16 No. 1, pp. 27-46.
- Link, B. G., Cullen, F. T., Struening, E., Shrout, P. E., Dohrenwend, B. P. (1989).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An empirical asse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No.3, pp. 400-423.
- Lochman, J., & Lampron, L.(1986). Situational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nd self-esteem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14, pp. 605-617.
- Long, D. F.(1990). *The Anatomy of Terrorism*. New York: Free Press.
- Loeber, R. and Hay, D. F.(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8, pp. 371-410.
- Loeber, R. and Stouthamer-Loeber, M. (1987). Prediction. in Herbert C. Quay(Eds.),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pp. 370-371). New York : John Wiley & Sons.
- Loeber, R. and Tengs, T.(1986). The analysis of coercive chains between children, mothers, and sibling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1, pp. 51-70.
- Maccoby, E. E. and Jacklin, C. N.(1974). *The Psychology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ccoby, E. E. and Jacklin, C. N.(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Vol. 51, pp. 964-980.
- Mastueda, R. L.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7, pp. 1577-1611.
- McMahon, S. D. and Watts, R. J. (2002). Ethnic identity in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Exploring links with self-worth, aggression, and other psycho-social variab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0 No. 4, pp. 411-431.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 limited and life - 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Vol. 100 No. 4, pp. 674-701.

- Oates, R. K., & Forrest, D.(1985). Self-esteem and early background of abusive mothers. *Child Abuse and Neglect, Vol. 9*, pp. 89-93.
- Olweus, D.(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86 No. 4*, pp. 852-875,
-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Orpinas & Frankowski,(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1 No,1*, pp. 50-67.
- Osofsky, J. D., Wewers, S., Hamn, D. M. and Fick, A. C.(1993). Chronic community violence: What is happening to our children? *Psychiatry, Vol. 56*, pp. 36-45.
- Parke, R. D. and Slaby, R. G.(1983). The development on aggression. In E. M. Hetherington(Eds.), P. H. Mussen(Sea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Vol. 4*, pp. 547-642). New York: wiley.
- Patterson, G. R.(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3 Eugene, OR : Castalia.
- Patterson, G. R.(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Vol. 41*, pp. 432-444.
- Raymore, L. A., Godbey, G. C. and Crawford, D. W.(1994). Self-esteem,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heir relation to perceptions of constraint on leis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6*, pp. 99-118.
- Rigby, K. and Slee, P.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3*, pp. 33-42.
- Rosenbaum, M. E., & DeCharms, R. (1960). Direct and vicarious reduction of hosti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pp. 105-111.

- Salmivalli, C.(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Vol. 6*, pp. 375-393.
- Saner, H. and Ellickson, P.(1996). Concurrent risk factors for adolescent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Vol. 19 No. 2*, pp. 94-103.
- Stoker, C. and Dunn.(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Links with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8*, pp. 227-244.
- Tomada, G. & Schneider, B. H.(199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peer acceptance; Invariance across culture, stability, and concordance among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51*, pp. 943-963.
- Wiehe, V. R.(1991). *Perilous rivalry: When siblings become abusive*. Lexington MA: Health/Lexington Books.
- Worchel, P. (1958). Personality Factors in the Readiness to Express Agg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4*, pp. 355-359.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the Aggression Levels of Juvenile Offenders Using the Heckman Selection Model

Lim, Jin-Seop* · Kim, Myoung-II* · Han, 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aggression levels of 2nd grade middle school juvenile delinquents. Data of 1st year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which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Young was used for analysis and analyzed by Heckman Selection model which solves the selection bias. The total number of cases is 3,449 including 677 juvenile offenders(14 year old offend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rough the Probit analysis, firstly, it was observed that the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reak the law compared to female students. The possibility of breaking the law was found to increase with the male students possessing low self control, who were male-oriented, focusing on patriarchal gender roles, with mor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having juvenile delinquent friends. Second, inputting the independent variable which solves the selection bias, the (λ) coefficient, it was observed that the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reak the law, compared to male students. The possibility of aggression was found to increase with the juveniles suffering from low self control, who were male-oriented, focusing on sex role stereotypes, high self-esteem and levels of stress, high level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more experience of domestic and environmental violence, having juvenile delinquent friends, and

*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those stigmatized by their pee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out and address the risk factors of aggression of juvenile offenders. It further provides important guidelines for decreasing the aggression levels of juvenile offenders.

Key Words : aggressive, juvenile offenders, Heckman Selection model.

투고일 : 6월 15일, 심사일 : 8월 24일, 심사완료일 : 10월 1일

